

# 이름따라 집값 달라진다...광주에 부는 아파트 '개명' 바람

### 광주 5개 자치구 건축물 표시 변경 0건→4건→올해 4건 처리 입주자 동의 받아 브랜드 변경...아파트 가치 상승 효과 노려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이름을 바꾸는 '개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와 이름에 따라 주택의 가격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명칭에 대한 입주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건축물 표시 변경(공동주택 명칭변경) 사례는 2년 전인 2020년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총 4건의 명칭 변경이 처리됐고, 올해도 이날 현재까지 4개 단지의 명칭이 바뀌었다.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권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외벽의 이름 등 변경한 명칭에 부합하는 실제적·유형적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공사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할 경

우 시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타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광산구에 위치한 '하남부영에시앙 1차'는 지난해 '산정셀트리움'으로 이름을 바꿨고, 북구 '신안한국하이빌'은 '신안한국아텔리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남구에 소재한 '주월동 이지더원아파트' 3단지과 2단지도 각각 지난해와 올해 초 '봉선 이지더원' 3단지와 2단지로 명칭을 변경해 남구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어질 당시 행정구역이 주월동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봉선동으로 편입되면서 입주자들이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

졌다.

행정구역과 단지 명칭에 괴리가 생기면서 혼선을 불러올 수 있어 명칭을 변경했으나,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단지가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을 아파트 이름에 표기하면서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휴먼시아나 천년나무 등 기존 공공주택 브랜드 명칭을 빼고 시공사 브랜드 등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남구 행암동 '효천LH천년나무' 3단지와 4단지는 지난 6월 '효천 남해오네뜨' 1단지와 2단지로 아예 이름을 바꿨다.

LH의 브랜드 천년나무 대신 시공 주택사의 이름을 따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앞서 남구 '광주백운1 휴먼시아'도 지난해 1월 '루엔시티'로 이름을 바꿨다.

이밖에 서구 '양동휴먼시아'는 최근 아파트 외관을 새롭게 도색하면서 단지 이름을 '센트럴뷰'로 바

꿨다. 해당 단지는 최근 광주시 서구에 공동주택 명칭변경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에 있는 '방림휴먼시아'도 '무등산 센트럴파크'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에 위치해 교통여건 등이 좋으면 '센트럴', 조망은 '뷰', 공원과 산책로 등 이른바 '공세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파크' 등으로 단지의 명칭을 적극 변경하는 분위기다.

또 지난해 입주한 '임동 중흥 S클래스 고운 라피네'도 최근 기존 단지명에 있던 '고운 라피네'를 빼고 '임동 중흥 S클래스 센텀파크'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오는 9월 말 입주를 시작하는 '무등산 자이&어울림'은 입주 전에도 예비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으며 '무등산자이&리첸시아'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금호건설이 기존 브랜드인 '어울림'에서 최근 '리첸시아'로 새로 론칭함에 따

른 것으로, 새로운 브랜드명을 적용할 경우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예비입주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아파트 명칭이 거래 가격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논문도 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본 석학회가 발행한 '명칭 변경 사례를 통해 살펴본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의 명칭을 인지도가 더 높은 브랜드로 변경한 경우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주변 아파트보다 약 7.8%의 프리미엄에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과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휴먼시아 등 공공주택 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아파트 이름과 브랜드에 따라 집값과 심리적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들도 브랜드나 입주여건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꾸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물 절약 실천 나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김현식)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도지부는 4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 일대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물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자원공사 영·섬유본부 제공>

##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4주 연속 하락

### 0.02%↓...하락 폭도 확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2022년 8월 1주(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북구는 -0.03%를 기록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 동구와 남구, 광산구도 각각 -0.02% 떨어졌다. 서구는 -0.0% 하락했다.

지난 달 11일과 18일, 25일 등 3주 연속 각각 -0.01% 하락을 기록했던 광주의 아파트 가격은 이달 접어들면서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4.48% 상승, 올해도 지난달 4일까지 106주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한 달새 하락 전환했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아파트 지난달 18일 이후 이달까지 3주 연속 매주 -0.01%씩 하락했다.

광주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금리 압박을 느낀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현재 분양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광주지역 아파트는 23개 단지, 1만6447세대에 달한다.

분양 적정 물량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데다, 추후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매매 거래가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LH광주전남, 월패드 해킹 방지...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 보안수칙 포스터 배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월패드 해킹으로 인한 입주자 사생활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수칙 포스터 배포 등 대책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내 아파트 700여 곳의 월패드 해킹되며 집 내부의 불법 촬영 영상물이 웹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유포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장비(방화벽)를 업데이트하고 네트

워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각 세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보안방법 홍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가전 사물인터넷 보안 가이드'를 보면 월패드 이용자는 기기는 반드시 암호 설정하기, 주기적으로 보안업데이트 하기, 카메라 기능 미 이용 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으로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LH 광주전남본부는 관할 임대아파트 중 카메라 달린 월패드가 설치된 6개 단지 4366세대를 대상으로 카메라 가림용 보안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

고, 월패드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보안수칙 포스터를 단지 내에 게시했다.

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LH는 현재 공동주택 스마트홈 보안 설계기준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연내 설계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경 LH 광주전남본부장은 "월패드 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원서 접수

### 8~12일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원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오는 10월29일 1·2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며, 광주지역에서는 광주대학교 등 20여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30일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층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매년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42만 여명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서영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일각에서 '어른들의 수능'으로 불릴 만큼 수험자들의 열기가 뜨겁다"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곧 직업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또는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전화(062-970-1768)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